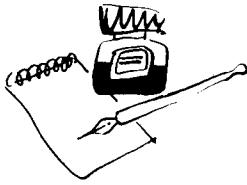


편집 후기



허둥대는 시간속에
수북이 쌓인 담배꽂초와 원고속에
파묻혀서 퇴근시간이라는 단어가 생소하게 느껴지리 만큼
바빴던 나날의 연속...

이번 만큼은 심기일전해서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멋진 작
품을 만들려고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항상 아쉬움만 남는건
어린 일인지? 이번이야말로 뿌듯한 마음으로 술 한 잔을
기울여야 할 텐데... (燮)

한해에 두차례 발간하던 「화재안전점검」지가 계간 「방재
와 보험」으로 탈바꿈함에 따라 나름대로는 기대에 부응코
자 많은 친지를 초대하고 잔칫상을 꾸미는 기분으로 서투른
숨씨에 들뜬 마음을 억누르며 정성을 기울였다. (永)

긴 시간 동안 없는 지혜를 짜내다 보니 어느덧 책은 서서
히 윤곽을 드러 내어가고, 점차 다리를 뻗을 수 있는 시간
은 다가오는가 보다. 이젠 집에 가서 저녁 먹을 수 있는 기
회를 주소서! (崔)

한 톨의 쌀을 얻기까지 땀흘리는 농부의 수고를 안다.
한 권의 책을 발행하는 과정도 마찬가지로 어렵다는 사
실을 알았다.

「방재와 보험」을 부끄럽지 않고 품위있는 책으로 제작하
기 위해 각고의 인내와 지혜를 총 동원 하였지만 모든 것이
부족하고 아쉽기만 하다.

돌이켜 보면 지난 봄을 어떻게 보냈는지, 여름이 언제 왔
는지 계절의 감각마저 잊은 채 계속되는 야간작업에서 몸
과 마음은 지쳤어도 화재안전점검지가 「방재와 보험」으로
모습을 바꾸어 발간되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조금의 위
로는 되리라.

공사다망한 가운데서도 방재와 보험이 발간될 수 있도록
욕고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.

편집위원 여러분과 제호의 글씨를 써 주신 광주지부 조
기선 과장께 각별히 고마움을 보내지 않을 수 없다. (洪)

투고를 환영합니다

계간 「방재와 보험」은 방화관련 종사자는 물론 보험
관계자와 방재에 관심이 있는 여러분 모두가 참여할 수
있도록 문을 열어 놓고 있습니다.

「방재와 보험」지에 유익한 내용이라면 때와 장소를
가리지 말고 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원고내용

- 방재와 보험에 관한 제언과 건의
- 화재보험의 손해보상으로 성공한 사례
- 화재예방에 관한 제언과 건의
- 소방관의 체험담 또는 소방수기
- 화재현장 목격담
- 시, 수필, 수기, 폰트 등 문예작품

□ 보낼곳

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5-4 (우편번호 150)

본협회 홍보부 방재와 보험 담당자 앞

문의전화 : 782-8156

□ 게재된 원고에는 소정의 교료가 지급됩니다.

防災와保險

1984년 여름호
계간/비 매 품

(통권제22호)

등록 / 마-827호 (1973년 10월 11일)

발행 / 1984년 7월 1일

인쇄 / 1984년 6월 30일

발행겸 편집인 / 이대용

인쇄인 / 성전문화인쇄사 / 강재수

사진식자 / 대림기획

발행처 / 한국화재보험협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-4

편집실 / 782-8156

※ 본지는 한국도서잡지윤리실천강령을 준수한다